



특별전시회

AAAS 제171차 연례회의

“과학을 진흥시키자, 사회에 봉사하자”

글_ 조속경 한국과학문화재단 전문위원 skcho@ksf.or.kr

조하였다.

“과학을 진흥시키자, 사회에 봉사하자(Advancing Science, Serving Society)”는 전통을 자랑하며 미국 전역에서 활동하는 과학자, 과학교사, 과학 커뮤니케이터, 과학관련 기관 종사자들을 한 자리에 모아 매년 공유의 장을 여는 미국과학진흥협회(American Association for the Advancement of Science)가 왜 존재하는지를 밝히는 협회의 슬로건이다. 세계적인 과학 잡지 사이언스를 발간하고, 미국에서의 기초과학의 연구와 교육 및 진흥에 앞장서 온 미국과학진흥협회가 지난 2월 17일부터 20일까지 워싱턴 D.C.에서 제 171차 연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의 전체주제는 “연계: 과학과 사회가 만나는 곳(The Nexus: Where Science Meets Society)”으로 그 어느 때보다 과학과 사회간의 즐거운 조화를 모색하는 매우 다양한 논의들이 이루어졌다. 기초 강연과 주제 강연 그리고 심포지엄과 특별이벤트 및 워크숍과 비즈니스 미팅으로 구별되어 진행된 모두 250회의 각종 행사에서는 과학자들과 과학교사들, 과학기자와 과학정책입안자들, 과학관련 산업의 종사자들과 일반대중이 서로 뒤섞여 ‘함의’를 찾기 위한 다층적인 협의를 진행하였다. 올해는 특히 세계 물리의 해로 아인슈타인의 특수상대성 이론 발표 100주년을 기념하는 각종 특별 이벤트가 개최되었는데, 세계적인 입자물리학자로 ‘초끈이론’을 연구하는 메릴랜드 대학교의 제임스 게이츠 교수는 기초강연을 통해 아인슈타인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 번째 밀레니엄에 던져주는 메시지는 결국 ‘인간과 창조성’임을 강

175개 세션에서 주제별로 폭넓게 논의

175개의 동시 세션으로 마련된 심포지엄에서는 환경과 정부정책에서부터 물리과학에서의 첨단, 정신과 뇌와 행동에서부터 국제적 과학기술정책의 비교까지, 나노 기술 및 생명공학 기술에 대한 대중적 수용도에서부터 과학의 역사까지, 사회적 행동의 동역학에서부터 시민과학교육, 기술혁신, 해양과 해안선 연구, 컴퓨터 과학의 응용까지 매우 폭넓은 과학의 주제들이 논의되었다. 향후 전개될 과학연구의 방향에 대한 고민과 산업적인 응용 및 국민적 차원에서의 수용도, 최근 일어난 우주과학에서의 진보와 질병치료에 대한 예측, 대기과학의 연구와 국가안보, 인간의 존엄성과 과학기술정책, 과학기술과 지적 재산권, 과학 및 공학에 대중의 적극적인 참여, 여성의 과학기술분야 진출, 다른 국가들과의 국제협력의 사례 등도 발표되었다.

과학문화를 확산하는 분야에 종사하는 과학교사들이나 과학문화 관련자들을 위해 마련된 워크숍에서는 과학교육 및 과학학습을 위한 다양한 전략 및 방법들이 3일 동안 내내 논의되었다. 특히, 인터넷 시대에 부합하는 ‘사이언스 넷링크(Science NetLinks)’에서는 인터넷을 활용한 과학교육의 현황에 대한 진단과 함께 발전된 기술을 습득하여 실제 과학교육 현장에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에 대한 훈련과정까지가 포함되었다. 또한 과



유럽연합의 특별홍보관

학자들이 쉽게 국회의원에게 접근하는 방법에 대한 강연부터 팔리는 과학책 쓰기, 과학관련 프리젠테이션을 잘 하는 방법, 과학자들과 인터뷰를 잘 하는 방법, 과학을 소재로 스토리 텔링을 잘하는 방법, 자신의 이력서를 잘 쓰는 방법 등까지 실무적으로 매우 필요한 내용들도 많이 다루어졌다. 특별 이벤트로는 '가족 과학의 날', 'AAAS 시상식', '나이트 장학금 수혜자 동창회', '아인슈타인 갈라 파티', '우수 과학도서 수상식' 등이 열렸고, 심포지아나 워크숍에서 발표되지 못하는 논문을 위한 특별 포스터 세션도 마련되었다.

美 '국가 R&D 예산 관련 심포지엄' 큰 관심 모아

연례회의에서는 또한 각 과학 관련 주체들간의 커피 테이블 대화가 실제로 공동협력사업으로 연결될 수 있게 하는 다양한 형태의 비즈니스 미팅이 마련되었다. '여성 과학자들의 만남', '과학에서의 기회를 위한 모임', '언어학과 자연과학의 만남', '과학과 장애인을 위한 모임', '게이와 레즈비언 과학자들을 위한 모임' 등은 눈에 띄는 모임들이었다. 특히, 심포지아에서 마련되었던 미국과 일본간의 PUR(과학연구에 대한 대중적 이해) 세션은 이러한 미팅을 통해 성사된 결과 중 하나였다.

2006년도 미국의 국가 R&D 예산이 어떻게 사용될 것인지에 관한 심포지아 세션은 많은 청중의 관심을 모았다. 미국은 9.11 테러 발생 이후 엄청나게 많은 예산을 국가 안보 및 테러 방지를 위해 투입하고 있으며, 국민건강은 국가 과학기술예산이 거대하게 투입되는 또 하나의 축이었다.

미국에서 개최되는 연례회의의 혹은 국제 심포지엄에는 이번이 처음이었다. 그래서 그런지 유럽에서 개최되었던 그간의 다른 행



사들과의 차이점이 눈에 많이 띄었다. 우선 항상 전화기와 이메일에 매달려 살았던 탓인지, 인터넷 사용이 용이하지 않았던 점이 무척 불편하게 다가왔다. 또한 연례회의의 내내 아침부터 저녁까지 매끼 식사를 각자가 해결해야 하는 것도 무척 큰 부담이었다. 비싼 등록비와 호텔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회의에 계속 참가하여 보다 다양한 기회를 갖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회의장에 도착하고 떠나는 사람들로 항상 북적거렸던 점은 아쉬움으로 남았다. 한국에서는 다행히 필자를 포함하여 이화여대 이혜숙 교수, 성균관

대의 이정모 교수, 카이스트의 윤정로 교수 등 여러 명이 참가하여 다양한 세션을 접할 수 있었으며, 향후 한국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활발하게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기회도 가졌다.

또 하나 다르게 보였던 점은 미국계 흑인들의 진출이 두드러진다는 점이었다. 미국 과학진흥협회 회장인 셸리 앤 잭슨은 MIT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최초의 미국계 흑인이었고, '사회를 위한 과학: 위험과 기회'로 기초강연을 한 맴펠라 람펠레 박사 역시 남미 아프리카 출신이며, 또 다른 기초강연자인 제임스 게이츠 교수 역시 미국계 흑인이었다.

시대흐름이자 미래 생존위한 패러다임 '융합'

21세기가 밝아오면서 세계적인 석학들과 국가정책에서는 한결 같이 '혁신(innovation)'과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그리고 '융합(fusion)'이라는 단어가 출현하였다. 이는 전세계인 모두가 지구라는 푸른 별이 세계인 모두를 위해 지속가능한 삶의 터전이어야 하며, 우주라는 신세계가 세계인 모두를 위한 혁신의 공간이어야 한다는 인식에서 출발하였다. 융합은 혁신과 지속가능성을 연결하는 다리로서, 이념간의 융합, 동서양의 융합, 사회계층간의 융합, 과학기술과 인문사회과학의 융합, 과학분야들간의 융합은 이제 생존을 위해 취해야 하는 패러다임이다. 이번 미국과학진흥협회의 연례회의는 융합의 가능성과 기회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깊다. 우리 나라에서도 몇 년 전부터 '융합'이라는 용어가 자주 회자되곤 한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아직도 과학 분야들간은 물론, 분야내에서도 전문주의가 튼튼하게 자리 잡고 있다. 시대는 전체 사회의 창조적 역량 강화를 위해 과학분야간, 더 나아가 과학과 타분야간의 융합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에게 '융합'은 아직도 하나의 '수사'일 뿐인가? 적어도 1년에 한번만이라도 과학기술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여 서로 인사할 수 있는 기회라도 마련되길 기대해 본다. ㉓